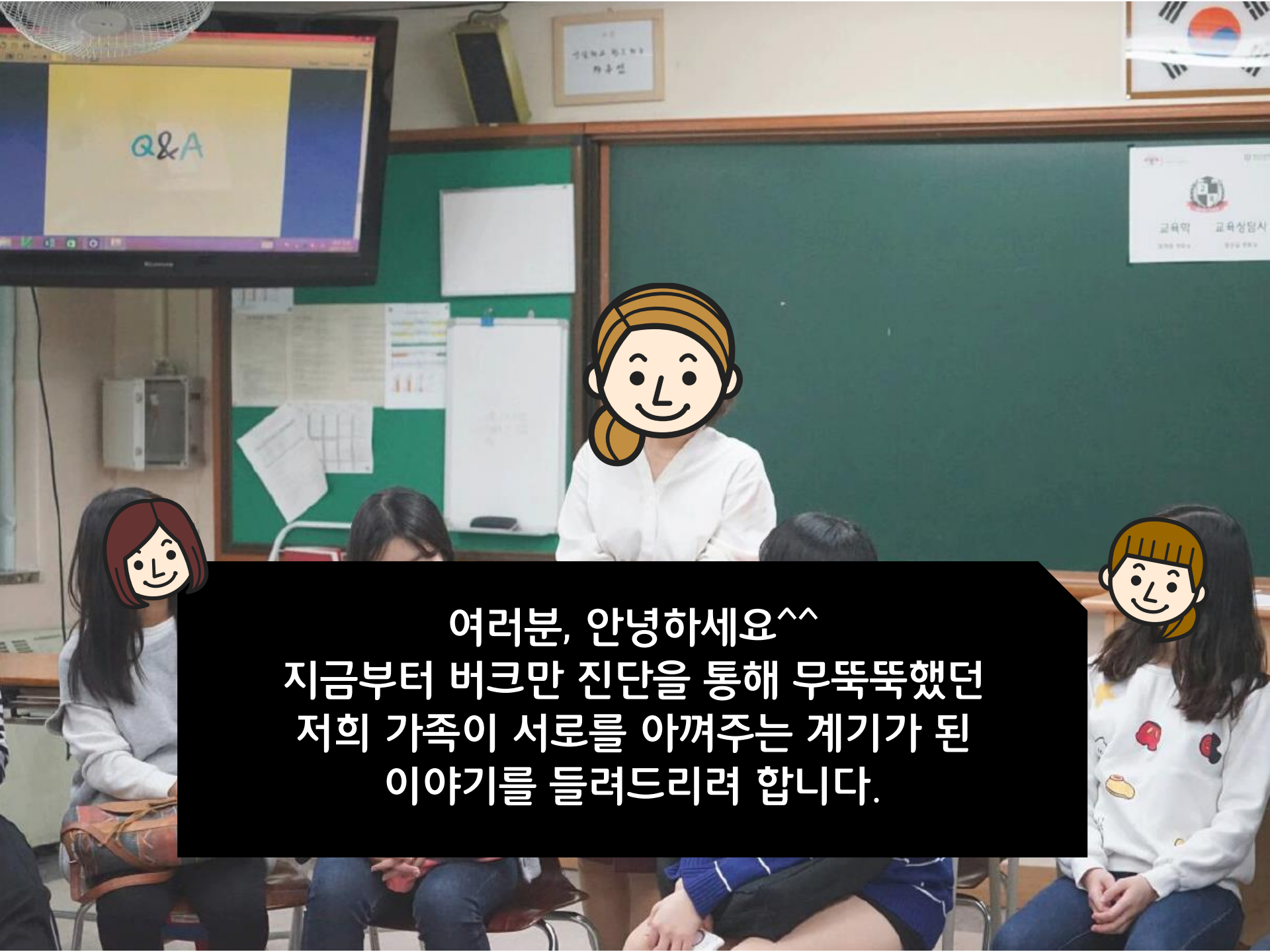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행복가족수업



Q&A

정신학과 정신과
학술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버크만 진단을 통해 무뚝뚝했던
저희 가족이 서로를 아껴주는 계기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Certificate of Completion

This credential is presented to
Signifying that the recipient has successfully completed
Birkman Training (Basic Debriefing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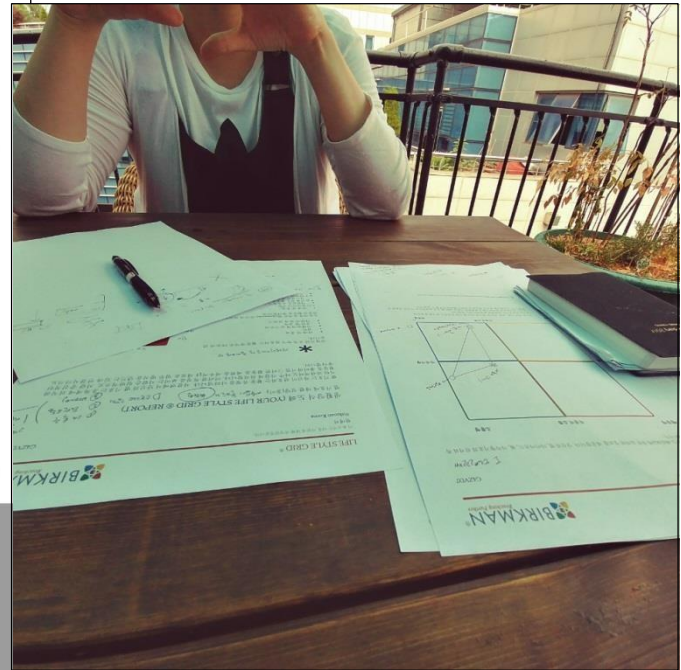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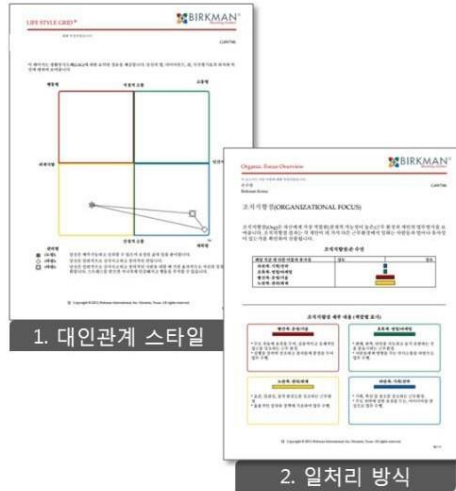
04 July, 2015



Park Suk Jong
Birkman Korea CEO



회사에서 우연히 접한 버크만 교육은
제 자신을 더 알아보고 싶게 만들었고,
베이직 디브리퍼 과정 이수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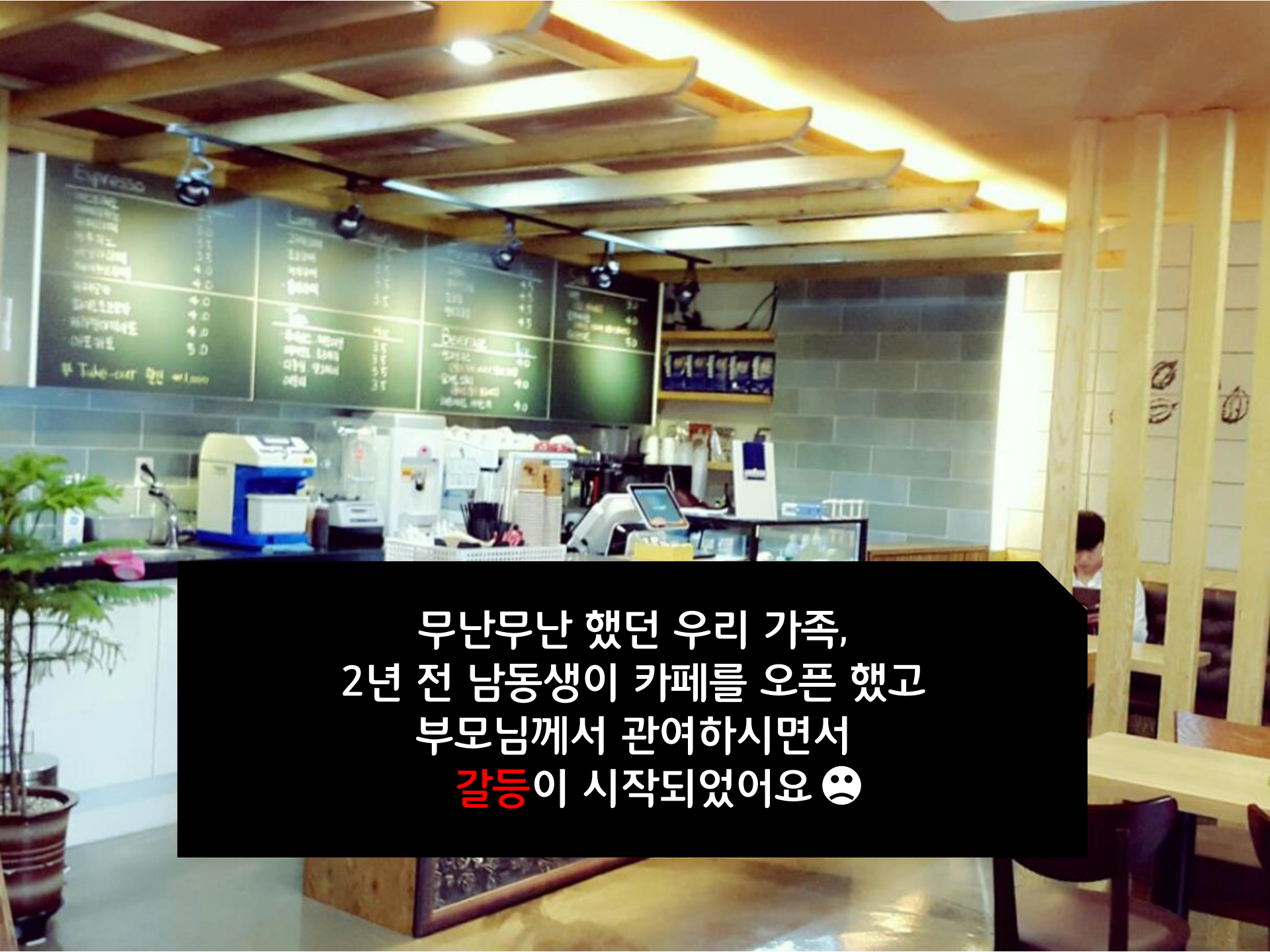


성격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강점행동, 스트레스 행동 완벽 분석!
버크만 진단 해설

**이 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한 디브리핑은 벌써 60명이나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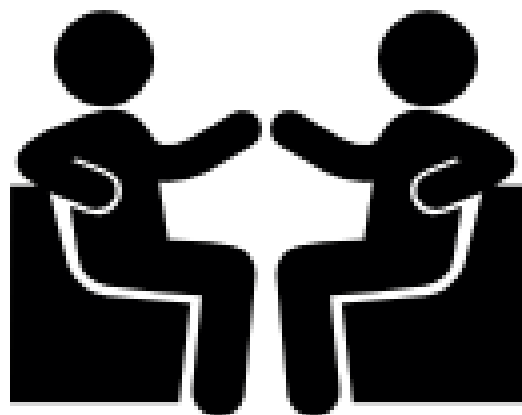
버크만과 함께 변화한 가족!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무난무난 했던 우리 가족,
2년 전 남동생이 카페를 오픈 했고
부모님께서 관여하시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



특히 아버지와 남동생의 **갈등**은 깊어졌고,
어머니는 중재하다 지칠 때면
멀리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하셔서
하소연 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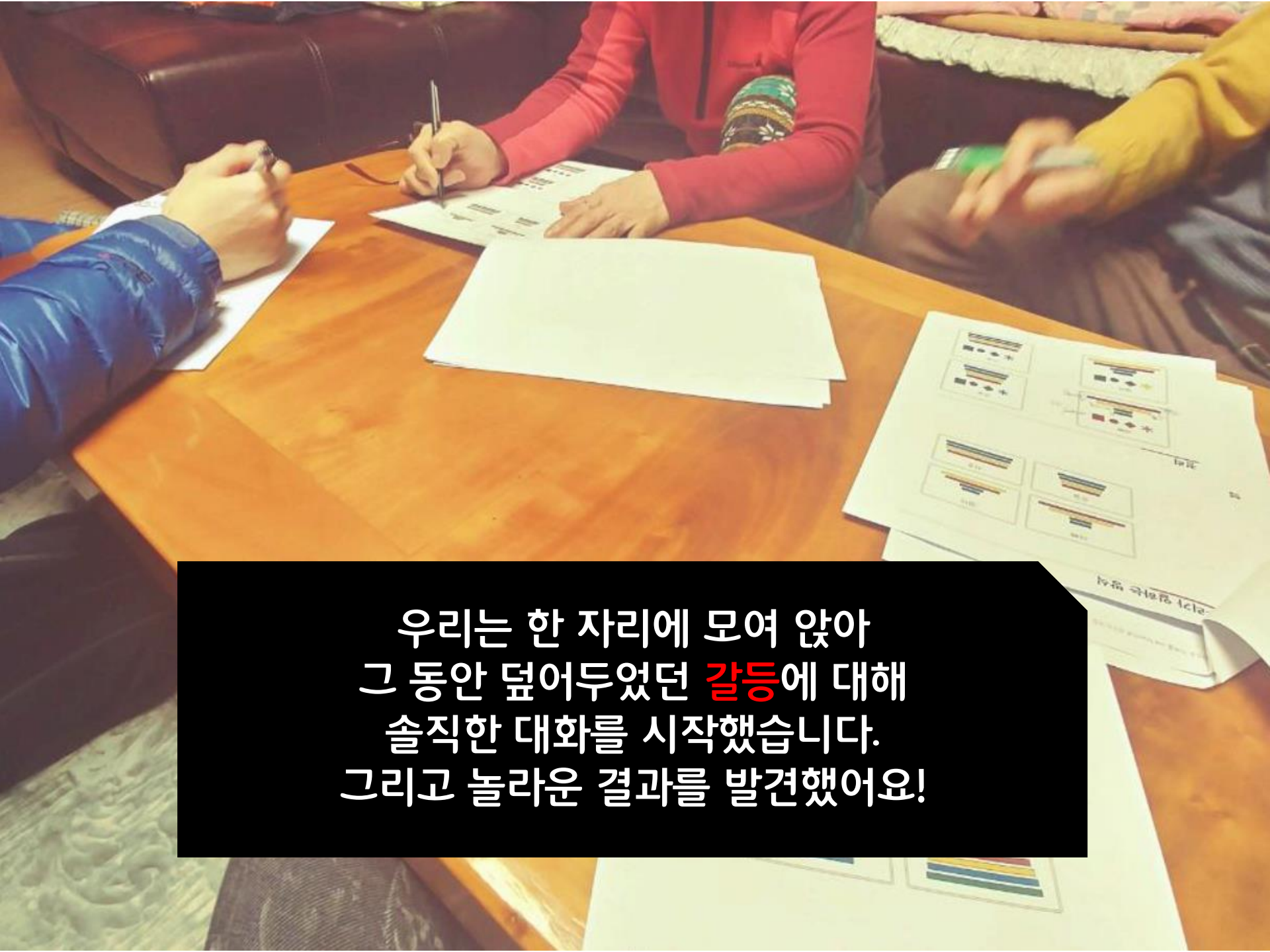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대화에 지친 아버지는 저를 통해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진단으로 가족을 one team으로 만드는 수업

우리가족이
행복해지는
행복가족수업

2017년 크리스마스,
저는 가족들과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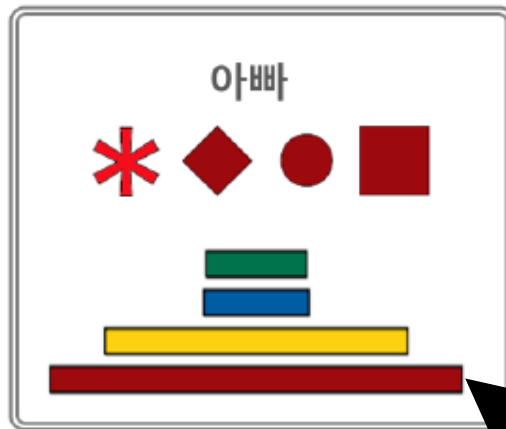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그 동안 덮어두었던 **갈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강렬한 All RED !

- ✓ 추진력, 실행력 1등
- ✓ 눈에 보이는 결과

하지만..?

- ✓ 참을성이 부족해요
- ✓ 감정에 무너져요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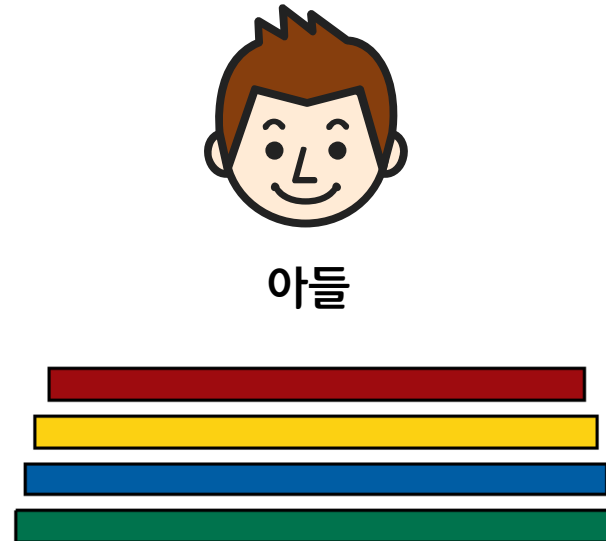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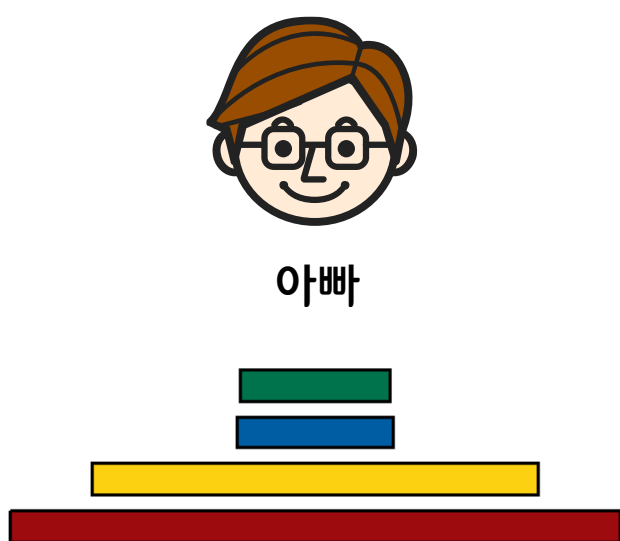


긍정에너지
All GREEN !

- ✓ 엄청난 사교성
- ✓ 동기부여는 나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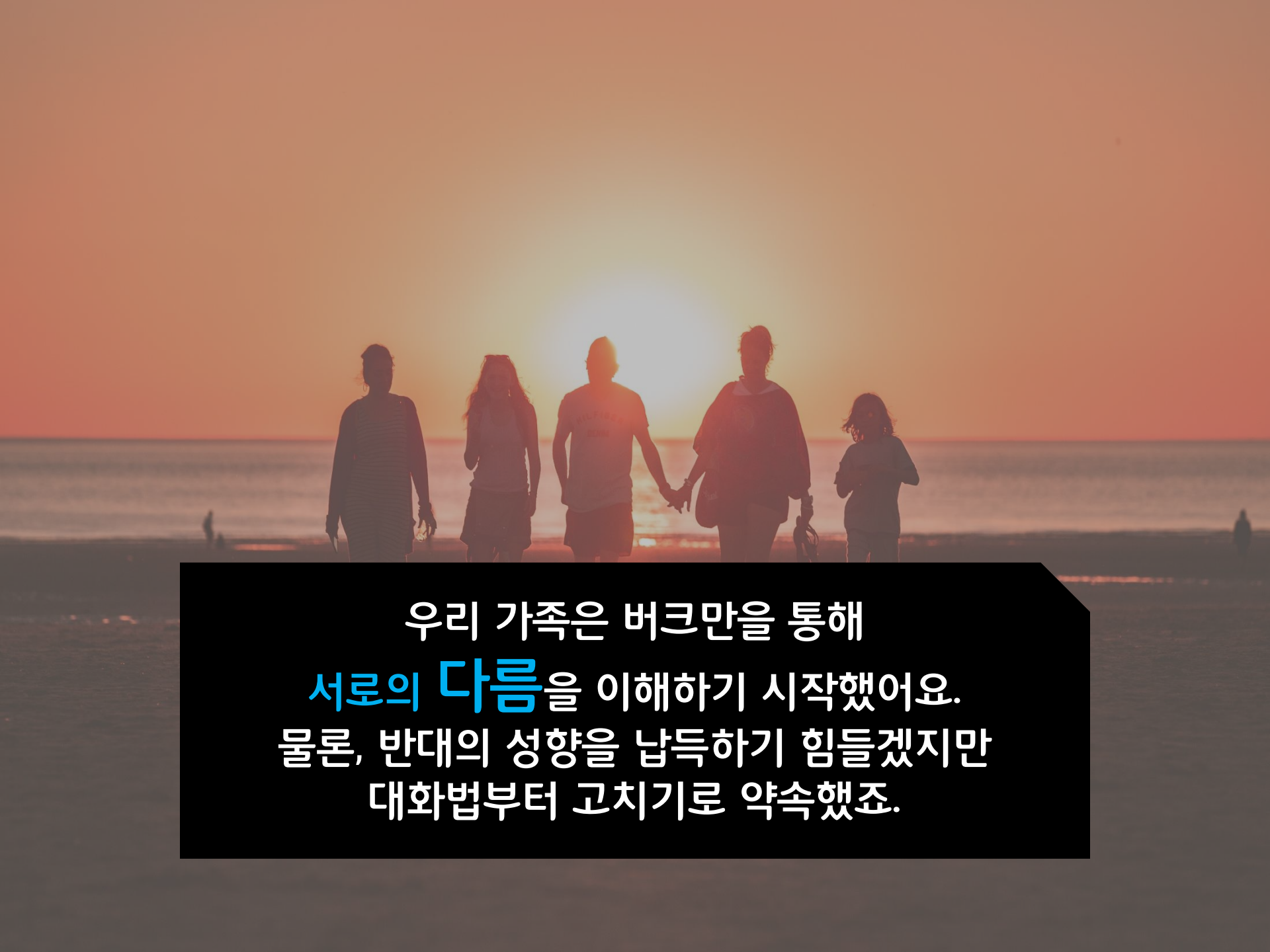
하지만..?

- ✓ 계획대로의 진행은 조금 어려워요
- ✓ 자기방어적이죠



아빠와 동생의 조직지향점도 한 몫 했어요.
일하는 방식은 완전 반대!
실질적 결과 = 행동파 vs **설득파 = 마케팅 목적**

그 동안 당연히 어긋날 수 밖에 없었죠!

A photograph showing the silhouettes of a family of five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on a beach.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creating a warm, orange glow. The family consists of two adults and three children. The text is overlaid on a black rectangular background in the lower half of the image.

우리 가족은 버크만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반대의 성향을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대화법부터 고치기로 약속했죠.



아빠

아내,  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칭찬하는 말 자주하기

-일할 때 속도는 50% 늦추기(기다려주기)

-잘하고 있는 것 먼저 말하고,
부족한 것 얘기하기



엄마

 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잘하고 있는 것 알아주기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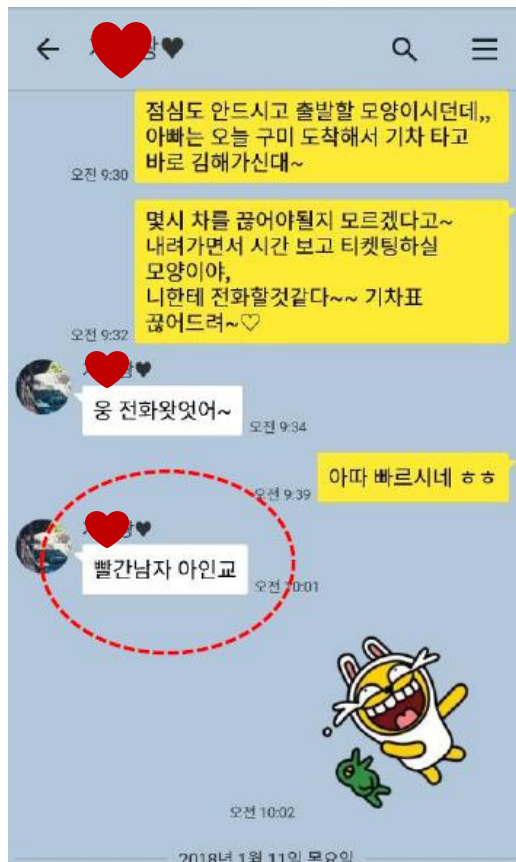
-딱 부러지게 일하기 & 말하기

-일 처리는 속도를 올려서 빨리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말과 행동을 정리하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 우리 가족에게는
버크만 언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행동
말하기/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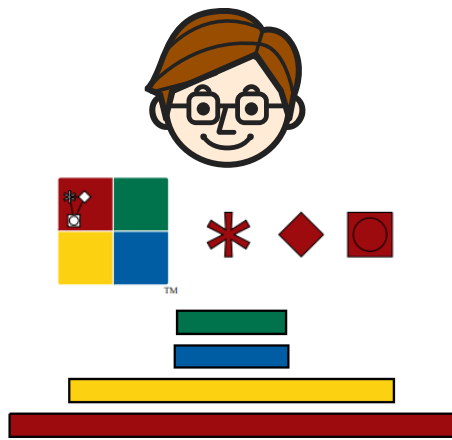


시작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과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버크만을 통해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서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 준 버크만코리아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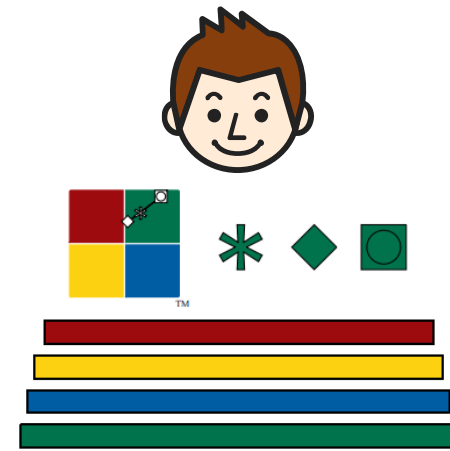
버크만이
제시하는
꿀tip!



아빠

아빠의 LSG는 모두 **R**입니다.
흥미, 평소행동은 **R**의 한가운데 위치하지만,
욕구, 스트레스 지표는 **R**인 동시에 **Y**에도
근접해있죠. 조직지향점 역시 **R**->**Y** 순서로
신속한 결단력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단순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빠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원하는 성급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죠.
이로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는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만들고, 아들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상기시켜주며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둘의
관계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아들의 LSG는 모두 **G**입니다. 흥미와
평소행동은 **G**에 위치하며 **R**에도 가깝죠.
하지만 욕구, 스트레스는 **G**의 특성이 강합니다.
조직지향점은 **G**->**B** 순서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하기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넓은
관점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판매와 마케팅에 최적화 되어있는 아들의 강점
이네요^^

하지만 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하는
G답게 갈등의 상황을 겪을 때에는 무엇보다
감정이 쉽게 상하거나, 본인의 감정 분위기에
따라 문제점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 즉,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아빠에게는 이런 부분이 답답
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아들은 아빠가 의견을 제시할 때 감정적인 부분
은 잠시 접어두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
다.